

## 조선로동당은 수령복이 있는 존엄높고 영광스러운 당

위 철

오늘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과감히 전진하는 존엄높고 영광스러운 당으로 위력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십성상에 걸쳐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로동당은 수령복이 있는 존엄높고 영광스러운 당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필승불패입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0페이지)

조선로동당은 혁명투쟁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온 수령복이 있는 존엄높고 영광스러운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존엄 높은 혁명적당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에 의하여 건설되고 강화발전되며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 그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칠수 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형의 혁명적당으로 건설되고 강화발전되었으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로숙한 혁명적당으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자주적 혁명적당으로 그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건설되고 강화발전되였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무엇보다도 옳바른 지도사상을 가져야 한다. 당의 지도사상에 의하여 당의 성격과 투쟁목적,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방향이 규정되며 당의 전투력과 위력이 좌우되게 된다.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당만이 위대한 당으로 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은 창건 첫날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자주적 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자기 발전의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영광스러운 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E. C》로부터 개척된 우리 당건설위업을 사람중심의 위대한 사상,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빛나게 실현하신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심으로써 전인미답의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워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만년기틀을 마련하였다.

지난날 사대와 교조에 물젖어 진정한 로동계급의 당조차 가질수 없었던 우리 인민은

자기의 불우한 운명을 통탄하며 력사의 쓰라린 흔적을 남기었다. 조선민족의 수많은 력사들이 갈길몰라 헤매이며 수난의 피를 뿌린것은 다 그들이 자기들을 이끌어줄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던 탓이었다.

오랜 세월 식민지약소국으로 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만 되었던 조선은 민족의 전설적영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비로소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이 승리적으로 개척되고 전진해왔으며 그 과정에 진정한 로동계급의 당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은 시작부터 생사를 판가리하는 반혁명세력들과의 결사적인 대결전, 혁명을 파괴하려는 수정주의를 비롯한形形色색의 기회주의사조들과의 첨예한 사상투쟁, 력사적으로 내려오며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와의 복잡한 투쟁을 이겨내야 하는 전인미답의 험난한 길을 헤쳐야 했다. 그 과정에 조선로동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새 조국건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라는 거창한 위업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왔다. 하여 조선로동당은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은 주체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웠다.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이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전설적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이처럼 조선민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가지게 되었으며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승리만을 아로새기는 수령복이 있는 존엄높고 영광스러운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어 온 불패의 혁명적당이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위업수행에서 수령의 후계자문제는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사활적인 문제이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선대수령의 혁명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를 대를 이어 모시는것처럼 크나큰 행운은 없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장군님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심으로써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계승성이 확고히 보장된 참다운 수령의 당,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를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받아들이시고 당안에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사상체계와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여 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던 주체53(1964)년 6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일군들과 하신 담화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들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자면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주선을 똑바로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선은 전당에 수령님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라고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중심론의 견지에서 당사업의 주선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

회의가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죄행을 낱알이 폭로분쇄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전환의 계기로 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를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3(1974)년 2월 19일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결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여 우리 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전당 김일성주의화를 당건설의 총적목표로 제시하신 것은 우리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길을 명시한 거대한 사변이였다. 전당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투쟁속에서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전변되게 되였다.

수령의 당으로서의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자면 령도의 계승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리혜안의 예지로 멀리 앞을 내다보시며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갈 령도자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고 령도체계를 세우도록 하심으로써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가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심으로써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인민은 나라의 근본이며 당의 공고성과 불패성은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 그자체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식화하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인민은 언제나 스승이였으며 인민의 의사와 요구는 당의 로선과 정책작성의 출발적기초였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하고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세계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인덕은 최전연초소와 외진 섬마을, 이 나라의 평범한 가정들에도 깃들어있으며 장군님의 인민적품모는 인민을 찾아 끊임없이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우에도 뜨겁게 새겨져있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 숨결과 발걸음을 같이해나가는 일심단결의 대진군속에서 고난의 행군이 승리적으로 결속되었고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귀중한 재부들이 마련되였으며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전환이 일어나고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이 활짝 꽃피어나게 된것은 우리 당의 인덕정치의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오늘 당과 국가활동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되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은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과 더불어 길이 빛날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심으로써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로 강화발전되였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

가야 하는 사회주의위업은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억척불변의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의 론리로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뚜렷이 밝히심으로써 우리 당이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게 되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집단주의원칙, 사회주의본태를 견결히 고수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은 겹쌓이는 시련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향도해올수 있었다. 전당이 사람과의 사업에 주력하여 우리의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반석같이 다지고 강력한 사상공세로 로동당시대를 진감시키는 혁명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를 높이 울리었으며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건설의 전역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킨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증시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었다.

이처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장군님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심으로 하여 당의 혁명적성격이 굳건히 고수되고 전당이 사상적순결체, 불패의 통일체, 최정예의 전위대로 강화되게 되었으며 모든 당사업이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심으로써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전투적위력과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강화되어나가는 불패의 혁명적당이다.

대를 이어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해나가는것은 혁명적당의 전투적위력과 불패성의 근본요인으로 된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에 들어선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과 똑같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조선로동당에 있어서 또다시 받아안은 수령복이다.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대를 이어 높이 모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그 위력을 높이 발휘해나가는 불패의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영원히 높이 들고나가며 우리 당의 모든 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지향시키고 북돋우시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4월 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하신 담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에서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이며 우리 당은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라고 천명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고 즐기게 투쟁하여온것처럼 앞으로도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중앙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는데 중심을 두고 심화시키며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우도록 하시여 우리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함으로써 난관과 시련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변질과 좌절을 모르고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의 혁명적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대를 이어 높이 모심으로써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연설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에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대를 이어 높이 모심으로써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변함없이 수놓아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는 교상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일군들을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가득 채우고 인민앞에 무한히 겸손하며 생눈길, 진창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근로자들이 시대의 영웅으로 존경을 받고 온 나라에 사회주의미풍이 차넘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이 언제나 인민대중을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해온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은 당을 진정 운명의 등대로, 어머니로 믿고 따르게 되었으며 이 땅우에는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자랑스럽게 펼쳐지게 되었다.

우리 당이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사회의 모든 재부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리며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게 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 안아온 빛나는 현실이다.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대를 이어 높이 모심으로써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이 겪은 시련과 난관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강철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으로 온갖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헤쳐나가시였으며 비상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개력,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이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더욱 강화발전되고 세계를 진감시키는 대사변, 대변혁들이 련이어 이룩되게 되었다. 우리 인민군대가 혁명적당군, 최정예전투대로로 위용떨치고 국방과학자들이 우리 식의 최강의 전략무기들을 련이어 개발하였으며 전체 인민이 주체조선의 영웅신화와 전화위복의 기적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면불휴의 애국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현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우리 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영원히 승리만을 아로새기는 백전백승의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과 꼭 같으신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대를 이어 높이 모시여 이 세상 그 어느 당력사에도 있어보지 못한 가장 큰 복인 수령복을 타고난 존엄높고 영광스러운 당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무한한 공지와 자부심, 행복감을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실마리어 조선로동당, 수령복